

한국도로협회-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업무협약 체결

“도로교통분야 신기술 지정 확대 및 회원사 해외진출 적극 지원 예정”



(우측부터) 류명현 상임부회장(한국도로협회)과 박종면 회장(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)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.

한국도로협회(회장 김진숙)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(회장 박종면)은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건설교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월 21일(수)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.

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국가 도로교통기술 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.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기술 적용과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술 협력, 양 협회 회원사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, 도로교통분야 신기술 지정 확대 및 국내·외 보급 등이다.

류명현 한국도로협회 상임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“우리 회원사들의 신기술 지정 확대로 도로교통 기술 혁신 및 신시장 개척을 기대한다”며, “해외시장에 관심 있는 우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해외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박종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은 “이번 업



무협약을 통하여 신기술 개발자들의 해외진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해외시장 정보 부족을 지원하여 회원사의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도 향후 협의를 거쳐 도로교통분야 신기술 지정확대 및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



한국도로협회는 해외 우수 전시회 한국관 참여, 비즈니스 미팅 개최 등 우리나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에 앞장서고 있으며, 세계도로협회(PIARC), 아시아·대양주 도로기술협회(REAAA), 국제도로연맹(IFR) 등 도로분야 국제기구와 미국·일본·중국·말련·인니·베트남 등 주요국 정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.



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(회장 박종면)는 건설교통신기술 개발자의 권익보호 및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9년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으며,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와 신기술 협약자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.